

## 소설 심사평

5·18을 기린다는 것은 무엇일까? 그 정신과 의미와 가치는 또 무엇일까? 지나간 역사를 지금 이 시점에 그리고 다가올 미래에도 계속 새기고 생각해야 할 이유는 무엇일까? 기억하는 자가 있으면 기록하는 자가 있고 인식하는 자가 있으면 새로운 의미와 가치가 계속 발생되며 역사는 영원한 사건으로 현재에 남게 된다. 그런 의미로 5·18 문학상은 5·18을 ‘지금’과 ‘이 곳’에서 계속 존재케 하는 의미있는 활동이자 낡지 않고 늙지 않는 생생한 목소리를 내는 현장이다.

5·18 정신이 깃든 ‘새로운 소설’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투고된 소설을 읽었다. 작년에 비해 양적으로도 질적으로도 소설이 좋아졌다는 것이 고무적이었다. 우선 응모된 소설의 양이 많았고 단순한 재현에 그치는 소설이 많이 줄어들었다. 정보와 사실을 나열하고 이미 많이 알려진 이야기를 충실하게 진술하는 방식은 지양해야 할 것이다. 5·18 리얼리티를 담은 소설은 이미 충분히 많기에 작가의 고민은 재현을 뛰어 넘는 혹은 재현에 구속받지 않는 다른 차원의 상상력이 필요하다.

「원인불명의 가려움증」 「안개」 「무용지물의 이해」 「나나의 돌」 「마스쿤」을 중점적으로 읽었다. 「원인불명의 가려움증」은 필력과 작가의 개성이 느껴지는 소설이었다. 표현력이 좋았고 진술도 힘이 있었다. 하지만 몇몇 부분이 거칠었고 정서적 설득력이 떨어진 점이 아쉽다. 「안개」는 세월호 사건을 중심으로 5·18을 떠올리게 하는 구성의 소설이었다. 의미적으로는 충분히 설득됐으나 전개 내내 감상적인 뉘앙스가 과하게 느껴졌다. 「무용지물의 이해」는 지금 현 시점에서 이루어지는 소소하고 일상적인 이야기로 은은하고 소박하게 5·18을 느껴지게 했다. 하지만 다른 소설들에 비해 심심하고 의미를 향해 나아가는 힘이 부족하다고 느꼈다. 「나나의 돌」은 마지막까지 고민하게 한 소설이었다. 화자의 목소리에 작가의 마음과 심정이 잘 녹여져서 독자로 하여금 감정을 갖게 하고 몰입하게 했으나 마지막에 이르러서는 구성에 조금 더 관심을 가졌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당선작으로 「마스쿤」을 정하는데 심사위원들은 쉽게 합의했다. 소설의 배경과 전개되는 이야기는 5·18과 무관하고 의미의 접점도 처음에는 쉽게 찾기 힘들었다. 하지만 중반 이후부터 5·18의 현재진행형을 연상케하는 알레고리가 보였다. 진실이 무엇인지 언론이 무엇인지 돈과 권력이 무엇인지 「마스쿤」은 근사하게 보여주고 끝에 이르러서는 의미있는 고민과 문제의식을 갖게 했다.

소설을 써준 투고자들에게 감사사를 전하고 당선자에게는 축하를 전한다. 심사와 상관없이 이번 기회에 5·18이 소멸되지 않고 지금 여기에 생생히 존재할 수 있도록 애써준 모든 이들에게 고맙다고 말하고 싶다.